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楸泰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59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재)청한장학회, 제19회 장학증서 수여식

시조묘역에서 45명의 후손에게 3,600만원  
1999년 10월 설립 후 1,022명에 10억 1,550만원



장학증서 수여 후 임원과 장학생들이 청주한문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촬영 원고)

### 명문 청주한문 후예의 긍지로 정진 노력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 추태중앙회장, 장학생들 격려

(재)청한장학회는 지난 5월 11일(토)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소재 시조부군(휘, 蘭)묘전에서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120여명의 일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태중앙총회장의 주관으로 2019년도 제19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6명, 고등학생 18명 등 45명의 장학생에게 총 3천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식전행사도 영일가의 집례로 시조부군에게 고유제(초헌관 추태중앙회장, 아헌관 동경부산회장, 종헌관 광구장학회이사, 축관 만구일가)를 올린다음 참석인사 소개, 경과보고, 추태회장 인사,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대표(서울대학교 한경준)선서,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원들과 학부모들이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면학을 격려하고 장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주한문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추태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1년에 한번 시조묘역에서 장학증서를 수

여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와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청주한문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은 1,000여 년 전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태어나셨고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용개 뜰을 개척하고 무농정을 세워 영농을 권장하고 향학을 일으키셨으며 서기 928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병사에게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고 몸소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이에 문하대위(국무총리급)의 벼슬에 올랐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청주라는 본관을 부여받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선조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목표를 세우고 정진노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서 한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우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 성씨처럼 종재가 많지 않기에 일가분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오던 중 다행히 훌륭한 신입이사장께서 전년도 말에 장학재단에 수익



장학생 대표(서울대학교 한경준) 선서 (촬영 원고)

부동산을 출연해서 현재 84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규 출연한 수익사업부문은 2020년부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과실금액이 감소해서 장학금 수혜금액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금이 계속 증대될 것이고 더 많은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생 여러분들도 사회에 진출하면 큰 관심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장학재단의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에 특히 기여해주신 임원분들과 신입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앙총회회를 모태로 지난 1999년 10월 29일 설립된 (재)청한장학회는 단위장학회 제도를 도입 (2013년도부터 5천만원 이상) 장학기금을 출연한 22개 단위장학회가 약 22억원, 중앙회 및 각 시도와 개인적으로 출연한 기금 약 12억원을 합쳐 약 34억원의 목적사업부문의 기금과 전년도 말에 신입이사장이 출연한 부동산 약 52억원의 수익사업부문의 기금 등 84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19회까지 대학원생 39명, 대학생 661명, 고등학생 322명 등 총 1,022명에게 10억 1,550만원을 목적사업부문의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 단위장학회장 및 시도회장과 장학생들의 기념사진 (촬영 원고)



추태 중앙회장과 장학생



고유제 봉행



태극대구경북회장(중앙) 춘희충정공회장과 장학생



연동판관공회장과 장학생



시조부군 신도비각 및 묘전 진입계단 전경



명수교위공회장(중앙) 광구이사와 장학생

## 청한장학회 장학생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장학생	학교명
중앙	한병기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4학년
	한민수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2학년
	안태준	능곡고등학교 1학년
세마공	한경준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1학년
	박지민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학년
	한승우	가천대학교 나노화학과 1학년
시외공	김민진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민소영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김기연	한양여자대학교 시각미디어디자인과 1학년
광천공	이동혁	동양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4학년
	장재혁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한혜원	국민대학교 법학과 1학년
관공	송준엽	대광고등학교 1학년
	한민지	일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권동혁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2학년
판관공	박재완	한솔고등학교 2학년
	한수연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한기태	가톨릭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과 4학년
국산공	한성민	하남고등학교 1학년
	방수진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
	한상진	인천송천고등학교 3학년
감사공	한대회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한지현	호매실고등학교 2학년
	한혜빈	삼고고등학교 1학년
청암공	정인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1학년
	한상민	천안공업고등학교 2학년
	한예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4학년
대구경북	한우철	동국대학교대학원 멀티미디어공학과 4학기
	최종원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1학년
	한정민	중앙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1학년
교위공	한선이	순천대학교 연극무용학과 4학년
	한민석	광주동성고등학교 3학년
	한예지	여수여자고등학교 3학년
서법공	한민석	광주동성고등학교 3학년
	한예지	여수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소연	상명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1학년
낙안공	한재용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한병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
	한재용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이원공	한병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학년
	한상진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1학년
	한승엽	부천중흥고등학교 2학년
부산시	한영희	부천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1학년
	한만성	호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1학년
	한상혁	한림성심대학교 의료기정보과 2학년
화정공	한동희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1학년
	한상혁	한림성심대학교 의료기정보과 2학년
	한동희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1학년
이양공	이우진	대구공업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이기석	충북공업고등학교 1학년
	한성민	마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서울	한성민	마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한성민	마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한성민	마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광시외공회장과 장학생



복석낙안공회장(중앙) 중주이원공회장과 장학생



길수국산공회장(중앙) 강감사공회장과 장학생



동경부산회장(우측2번째) 흥구이사 삼랑부회장(좌 2번째)과 장학생



선교감사(중앙우측) 승남감사와 장학생



광전경기회장(좌측2번째) 갑수대전회장과 장학생

# 문성대왕 춘향대제 봉행

지난 4월 9일 (음 3월 5일) 기자조선(후 조선)을 건국한 문성대왕 기자(文聖大王箕子)를 추모하는 춘계제향이 길수회장, 승남감사, 임현출도안면장을 비롯 청주한문과 증평군 관내 유림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에 소재한 기성전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길수청주한씨서원군문중회장, 아헌관에 임현출도안면장, 종헌관에 한흥구청한장학회이사가 분방되었으며 종호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증평기성전(箕聖殿)은 당초 약 250여년 전 청주한씨 21세 한시태할아버지께서 도

안면 노암리 산 35-1번지에 기성사 사당을 건립하여 기자영정을 모시고 150여년간 제향을 모셨으나, 함흥 기성전 제향에 참여한 원이 감소되고 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제향을 모실수가 없어 1913년에 26세 한응각, 27세 한예기 두분이 함흥에 올라가 영정과 향나무 5본을 증평으로 모셔왔다. 1914년 한응각(韓應珪)이 백미 50가마의 사재와 노암리 임야 500평과 대지 600평에 사당을 이축하여 영정을 옮겨 봉안하였고 향나무 5그루는 사당 뒷산에 심었다.

현재의 기성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솟을대문에 홍삼문, 내삼문, 외삼문에 담장이 둘러있으



며 영정은 이북화가 김이삼이 모사하였다.

사당이 10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어 무너지기 직전에 한갑수회장의 주선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2년도에 새로 건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붕 일부가 무너져 한추태회장이 홍성열증평군수의 지원

으로 보수하였다.

기성전은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증평군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유림과 정혜공파 책임 하에 매년 음력 3월 5일 제향을 봉행해 오다가 현재는 청주한씨중앙총친회 주관으로 봉행하고 있다.

# 무강왕·왕비 춘향대제 봉행

## 제례 봉행 후 익산시청 앞 역사왜곡 규탄집회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19년 기해년 춘향대제가 중앙총친회(회장 추태) 및 팔봉왕릉종친회(회장 광운)주관으로 지난 4월 19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산 55, 56번지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에서 200여명의 후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왕피'로 불리는 무강왕릉과 왕릉 서쪽 200m 거리의 '소왕피'로 불리는 왕비릉에서 각각 엄숙

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추태중앙총친회장, 아헌관에는 태락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장, 종헌관에는 광운팔봉왕릉종친회장이 분방되었으며 축관에 도영(문열공파총무), 집례는 종호영흥공파회장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제례 봉행 후 익산시청 앞에 집결, 마한태조 무강왕릉에 대한 역사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



제례 봉행 후 기념촬영(촬영 원교)

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하고 무강왕릉을 수호보전하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

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 익산시청 앞 2차 항의집회, 쌍릉 역사왜곡 즉각 중지!

대왕릉은 무강왕릉이다! 익산시장과 최완규교수의 사죄 요구  
언론사 취재 · 보도 및 지역민들의 관심도 유발



태락회장의 선도 하에 규탄 및 항의집회를 하고있다(촬영 원교)

지난 4월 19일 무강왕·왕비 춘계 대제 봉행 후 참석한 청주한문의 전 종원들은 오후 1시 익산시청 앞에 집결, 선도 차량의 마이크방송과 현수막, 피켓 등을 앞세우고 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회 태락위원장의 선도 하에 익산시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2차 항의시위를 진행하였다.

중앙회장을 비롯해 태락회장, 광운회장 등 다수의 항의발언을 통해 익산 대왕릉은 정사기록과 묘적기록부, 유물, 유적이 증명하는 명백한 청주한씨 선조인 마

한태조 무강왕릉임을 강조하고, 백제 무왕릉이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역사왜곡 조장하는 익산시는 쌍릉역사 짜맞추기를 즉시 중지하고 익산시장과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은 청주한문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쌍릉 땅 취득경위와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청주한씨로의 땅 반환 등의 요구사항을 거듭 주장하고 항의하였으며, 고려사절요와 고려사 등을 근거로 대왕릉이 마한 무강왕릉이라는 주장을 게재한 쌍릉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유인물도 배포하였다.

## 결 의 문

청주한씨를 위시한 마한 태조 무강왕 후손들은 무강왕릉인 익산 쌍릉의 대왕릉을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무왕릉으로 둔갑시킨 익산시와 관계당국을 강력 규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한다.

- 익산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라!
  - 익산시는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대왕릉 발굴 결과를 반성하고 재조사하라!
  - 익산시의 일제강점기 대왕릉 발굴기록은 왜곡조작으로 원천 무효이다!
  - 익산시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대왕릉 발굴조사 결과는 의문투성으로 신뢰할 수 없다!
  - 익산시는 명망있는 사학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 결과를 도출하라!
-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분개하면서 익산시와 관계당국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4월 19일

마한태조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원 일동

이날 항의집회는 내외일보, 전주매일 등 지역 2~3개 언론사에서 취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었으며 지역민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집회내용을 지켜보았다.

특히 게재 기사를 통해 부여에서 활동한 무왕의 무수한 기록에도 정체불명의 관세음승탑기 몇 줄을 근거로 익산천도나 왕궁리 유적지를 백제왕궁 운운하거나 대왕릉이 백제 무왕릉이라 주장해 오던 일부 사학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쌍릉 재발굴을 맡긴 것부터 객관성 결여로 크게 잘못됐다는 비판과 아울러 대왕릉에서 나

왔다는 인골을 연대추정에 의해 백제 무왕릉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해괴한 주장에 반론도 적지 않아 익산천도나 백제왕궁, 대왕릉이 백제 무왕릉이라는 주장은 일부 사학계 주장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총친회는 무강왕릉수호범대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주한문의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와 선우씨, 기씨문중과도 긴밀히 협의 대처하는 한편 더욱 강력한 항의시위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당일 시위를 종료하였다.

# 시조「태위위양공」부군 탄신제 봉행

## 시조탄생유지 청한각 경내에서



제례봉행에 앞서 국민의례를 행하고 있다(촬영 원교)

중앙종친회(회장 추태)는 지난 4월 13일 갑수명예회장, 추태중앙회장을 비롯 전국에서 8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청한각에서 기해년 시조 태위위양공부군의 탄신제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선교총성공파회장, 아헌관에는 갑수대전시종친회장, 종헌관에는 근희(영동군)일가, 축관은 동훈무농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만구(문정공파)일가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추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 서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

청한각 건립 경위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갑수명예회장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국에 계신 많은 일가분들의 동참과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전하고 선조님의 유지를 기리는 훌륭하고 자랑스런 유물과 유적을 성심으로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기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제례 봉행 후에는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답소와 덕담을 나누는 정겨운 식사자리를 함께하였다.

# 추·모·봉 삼재조 기해년 시향제 봉행

추·모·봉(追·慕·鳳) 삼재조(三齋組)의 기해년(己亥年) 시향제가 지난 4월 5일(음력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삼재관리위원회(회장 철호)주관아래 추태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450여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5일 오전 11시에는 6세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의 추원재(追遠齋)에서, 6일에는 7세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의 모원재(慕遠齋)에서, 7일에는 8세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헌관 분방 별항)



예빈경부군의 제례봉행에 앞서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철호삼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며칠 전 유명을 달리하신 고 한희전님의 업적을 기리며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영면을 간절히 바

라는 추도에 이어 중앙회 추태회장을 비롯 전국의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추태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삼재조 춘향대제에 전국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과 시향제를 준비한 삼재관리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중앙종친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삼재관리위원회 재윤총무)

### ▲ 헌관분방

6세조 예빈경부군 초헌관 : 楸泰(중앙회장) 아헌관 : 啓炫(나주시) 종헌관 : 相完(서울시) 축 관 : 基孝(순천시) 집례 : 相玉(고창군)	7세조 문혜공부군 초헌관 : 仁東(창원시) 아헌관 : 相瑛(여주시) 종헌관 : 忠熙(광주시) 축 관 : 相基(영광군) 집례 : 相賢(광주시)	8세조 제학공부군 초헌관 : 基洪(광주시) 아헌관 : 永浩(부산시) 종헌관 : 東燾(영광군) 축 관 : 到榮(인천시) 집례 : 基東(영광군)
--	---	---

# 9세 사숙공부군 한식절사 봉행

## 이어 10세 평간공 · 11세 문경공부군도

9세 사숙공부군(思肅公府君, 諱渥)의 2019년도 기해년 한식절사(寒食節祀)가 사숙공추모회(회장 규동)와 평간공봉찬회(회장 태교) 주관으로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87번지 소재 선영에서 만구일가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어 인근 일대에 묘소가 있는 10세 평간공(平簡公, 諱公義), 11세 문경공(文敬公, 諱脩), 충간공(忠簡公, 諱理), 판사공(判事公, 諱齊)부군의 한식절사도 봉행되었다. (12세 문열공(文烈公, 諱尙質)부군은

금년부터 5월 1일로 변경) 사숙공(원종 15년, 1274년~충혜왕 3년, 1342년)은 고려 충선(忠宣), 충숙(忠肅), 충혜(忠惠)왕조 때의 문신으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헌관(顯官)을 역임하였으며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에 책봉되고, 삼중대광도점의우정승(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에 올랐으며 69세에 별세했다.

- ▲사숙공 제관분방
- 초헌관 : 길수서원군파회장
- 아헌관 : 기천인천시종친회장
- 종헌관 : 광전경기도회장
- 축 관 : 동훈무농회장
- 집례 : 만구문정공파총무

- ▲평간공 제관분방
- 초헌관 : 현구청성군파회장
- 아헌관 : 재국판사공파회장
- 종헌관 : 삼량청한산악회장
- 축 관 : 유희이랑공파회장
- 집례 : 만구문정공파총무

# 10세 서원군 시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서원사에서

10세 서원군(西原君, 諱方信)의 2019년도 기해년 시제가 지난 4월 17일(음력 3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소재 서원사(西原祠)에서 甲洙중앙회명예회장, 昌敎교문, 吉洙회장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종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석일가의 집례로 초헌관에 춘희총정공파회장, 아헌관에 규장정랑공파회장, 종헌관에 준석전사숙공추모회장, 축관에 덕수일가가 분방되어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한편 이날 시제에 앞서 영모재에서 서원군과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원사 사적비 수립에 관한 사업계획 등을 승인 가결하였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와 청주한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거족이자 현재 100만에 이르는 국내 10대의 대성이다. 여기에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영동난곡리의 청한각과 성장 활동하면서 대업의 큰 뜻을 이룬 무농정과 방정 등의 유물이 청주에 보존되어있고 전국 8대명당 중 으뜸인 곳 가산리에 유택이 잘 보존되어있음에 3가지를 모두 갖춘 성씨임에 자부심을 갖고 매사 신중을 기하자고 당부하였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외풍에



정기총회 후 기념촬영

도 견실한바 우리 선조님들이 다져놓은 뿌리 깊은 기반을 토대로 종현분들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서 종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했다. 갑수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종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주는 서원군과길수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에도 변곡되거나 분쟁요인이 없도록 매사 신중하고 확실하게 종사기반을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격려했다.

서원군은 고려 공민왕 때 문신(文臣), 무신(武臣)으로 동양 11년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고 수도 개경(開京)을 수복한 공로로 수충병의 협찬공신(輸忠秉義 協贊功臣) 1등으로 책훈되고 삼중대광 첨의부찬성사(三重大匡 僉議府 贊成事)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으며, 사숙공(諱渥)의 5남이자 제학공(諱謝奇)의 손자이다.

# 문간공부군(휘 尙敬) 기신제 봉행



문간공부군(12세.휘 상경)의 기신제가 지난 4월 11일 (음 3월 7일) 문간공종중의 동수회장을 비롯 8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신재묘(信齋廟)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봉사손인 봉수, 아헌관에 동헌 문정공종중 원로, 종헌관에 석희문양공종 중회장, 축관에 동권참관공종중이사가 분방되었으며 증호문정공종중이사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동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신제 참여를 통해 신재할아버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일가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문간공부군은 문경공 유항(柳港) 수(脩)의 아들이자 평간공 공의(公義)의 손자로서 공민왕 10년 1360년에 출생하였고 자(字)는 숙경(叔敬) 호(號)는 신재(信齋)이다. 조선익재개국공신(朝鮮翊載開國功臣)에 책록되어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세자사 서원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世子師 西原府院君)에 봉하였다. 세종 6년 1423년 3월 7일 64세로 하세하셨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125(丑坐)에 안장하시었다.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상렬 문간공종중부회장>

# 대구·경북종친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2018년도 결산(안)·2019년도 예산(안) 가결



인사말을 하고 있는 태락회장

대구·경북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5월 4일 대구 수성구소재 청한회관에서 추태중앙회장, 재영, 석호, 희섭고문, 강락명예회장을 비롯한 종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종사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가결하고 식후행사로 흥겨운 공연과 오찬을 함께하며 일가간의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추태중앙회장은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대구·경북종친회와 태락회장의 활동과 열성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중앙종친회관 건립, 무강왕릉 수호보전, 뿌리공원 조형물 개수, 노트북 발간 등의 계획

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중앙회의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태중앙회장의 참석과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대구·경북종친회 50년사 발간, 청년산악회 조직, 홈페이지 구축 등 중요한 종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무강왕릉 수호보전에 대한 중차대한 일에 직면하여 고유제와 춘향제 봉행, 규탄대회 등을 어렵사리 추진하고 있음은 뿌리를 찾고 지키겠다는 우리 모두의 사명에 찬 관심 덕분이며 종원분들의 참여와 협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태락 대구경북회장>

# 한온장군충신정문 (韓蘊將軍忠臣旌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594소재, 평택시향토유적 제3호

이 정문(旌門)은 조선 명종 때에 일어난 을묘왜변(乙卯倭變)때 전라도 장흥부사(長興付使)로 재직 중 왜구와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한온장군(1511~1555)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장군은 이 고장에서 태어나 20세 때 과거에 올랐고, 38세 때 장흥부사에 부임,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피주는데 힘써 신망을 받았다. 그러나 이때 장흥달랑포(達梁捕)에 왜선 70여척이 쳐들어오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숙종 22년(1696) 그의 충절을 기려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내리고 충신정문을 세우게 했다.

현재의 정문 규모는 정면 1간(250cm), 측면 1간(215cm)으로 정면은 홍살을 만들고, 측면과 배면은 벽으로 쌓았다. 화강석으로 된 사각뿔대 초석 위에 목조 원형 기둥으로 지붕은, 한식의 골기와를 얹은 맞배지붕이고 옆면은 방풍널을 달고 있다.

정문은 붉은 적벽들의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데 정면에 조그만 문을 달았으며, 정문 안 정면 중앙에는 현판이 있고 내부 왼쪽 옆면에 정문 내용이 걸려 있다.

한편 내부의 왼쪽 현판에 ‘철장석선 일심순국(鐵腸石膳一心殉國)’(창자는 쇠붙이와 같고 쓸개는 돌과 같아라. 그 마음은 나라에 바쳤도다)라는 기록은 그의 순절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을미왜변때 달랑포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전사한 한온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숙종9년(1683) 장흥 사람들이 충렬사를 건립하여 제사를 받들어 모셨다. 숙종22년(1696) 병조판서로 추증되고 충의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충신정문이 하사되었는데, 정문의 내용은 “충신 증 자헌대부·병조판서·겸 지의금부사·지훈원사·오위도총부도총관·행통정대부·장흥도호부사 한온의 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소유 및 관리자 - 청주 한씨 종중

# 충의공 충신정문 단청 및 보수공사 준공 고유제 봉행

장간공하 충의공과종친회(회장 찬규)는 지난 5월 2일 평택시의 지원으로 충의공(忠毅公) 한온(17세, 韓蘊)장군 충신정문 단청 및 수리공사를 준공하고 찬규회장을 비롯한 종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

건하고 엄숙하게 고유제를 봉행하였으며 집성촌 일가들이 마련한 정성이 담긴 점심을 같이하며 선조님의 유훈을 기리는 한편 후손들이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의공종중총무회>

# 중앙회 춘섭(春燮)자문위원 별세

청주한문의 원로이신 춘섭자문위원(문정공파)께서 지난 4월 5일 숙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향년 92세.

춘섭자문위원께서는 공직인 서운면장을 역임하셨으며 협소재(愜素齋) 한선생 유고의 번역 출간과 협소재이하 직계선조석의(石儀)를 완비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청주한문의 종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다.

요즘은 보기 드문 전통방식의 상여로 고인을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장례의례를 이행하면서 안성향교 효행표창을 받은 고



인을 애도하였다. 의구청한예학회장의 부친이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운영회비(3~4월)		단위: 원
이름	금액	
갑수 명예회장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000	
기일 부회장(현령공파 회장)	1,000,000	
재국 부회장(판사공파회장)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500,000	
광수 부회장(서울시회장)	50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5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20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0	
승남 감사(광주 북구)	200,000	
덕수 운영위원(파주시회장)	200,000	
병철 운영위원(화성시회장)	200,000	
상남 운영위원(강북도봉회장)	200,000	
상웅 운영위원(참의공파충의공파회장)	200,000	
경석 이사(서울 강남구)	100,000	
규아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기창 이사(충남 당진시)	100,000	
백웅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병준 이사(서울 관악구)	100,000	
상기 이사(충의공파)	100,000	
상락 이사(서울 동작구)	100,000	
상필 이사(경기 하남시)	100,000	
상필 이사(충남 청양군)	100,000	
영섭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우선 이사(서울 서초구)	100,000	
운동 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종원 이사(인천 계양구)	10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100,000	
태호 이사(인천 중구)	100,000	
<b>합 계</b>	<b>9,400,000</b>	

일반찬조헌성금(1~4월)		단위: 원
이름	금액	
권희(부:상필) 충남 청양군	1,000,000	
문정공파주곡리문중	300,000	
파주시종친회	300,000	
문간공파종중(회장 동수)	100,000	
장훈 부회장(충북도회장)	100,000	
<b>합 계</b>	<b>1,800,000</b>	

개인정보비(3~4월)		단위: 원
이름	금액	
삼량 이사(서울 관악구)	100,000	
종현(충남 금산군)	100,000	
창영(경남 해남군)	100,000	
태성	1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50,000	
노동(충북 청주시)	50,000	
덕수	50,000	
명희(서울 용산구)	50,000	
상운(서울 강북구)	50,000	
우선 이사(서울 서초구)	50,000	
인교(경기 동두천시)	50,000	
정희(서울 금천구)	50,000	
태진 이사(경북 구미시)	50,000	
계봉(경기 화성시)	30,000	
광수(대전 서구)	30,000	
대봉(울산 중구)	30,000	
동연(경기 군포시)	30,000	
민교(충남 천안시)	30,000	
병호(충남 부여군)	30,000	
상길(울산 울주군)	30,000	
상훈(경기 수원시)	30,000	
석우 이사(경기 용인시)	30,000	

성규(경기 구리시)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우회(전남 나주시)	30,000
인석(경기 하남시)	30,000
장석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30,000
정수(광주 동구)	30,000
조정(서울 마포구)	30,000
준희(서울 서초구)	30,000
강현(충남 아산시)	20,000
계희(충의공파)	20,000
관희(충의공파)	20,000
규상(경기 김포시)	20,000
규성(인천 계양구)	20,000
기대(경기 이천시)	20,000
기철	20,000
다교(대전 서구)	20,000
대규(경기 부천시)	20,000
동석(서울 광진구)	20,000
동희(충의공파)	20,000
두석(서울 성북구)	20,000
만규 이사(경기 고양시)	20,000
만길(광주 북구)	20,000
만석(서울 중랑구)	20,000
만응(충남 서산시)	20,000
만정(경기 고양시)	20,000
명덕(전남 해남군)	20,000
무희(충의공파)	20,000
문석(충의공파)	20,000
문수(충의공파)	20,000
문희(충의공파)	20,000
병덕 이사(경기 화성시)	20,000
병준 이사(서울 관악구)	20,000
복규(충의공파)	20,000
복원(서울 영등포구)	20,000
봉수(광주 남구)	20,000
상기 이사(충의공파)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락 이사(서울 동작구)	20,000
상만(경기 평택시)	20,000
상욱(경북 상주시)	20,000
상운(강원 횡성군)	20,000
상은(충의공파)	20,000
상태(서울 도봉구)	20,000
상필 이사(경기 하남시)	20,000
상훈(서울 강서구)	20,000
석권(전북 남원시)	20,000
순례(서울 관악구)	20,000
순석(경기 오산시)	20,000
승규(경기 성남시)	20,000
신희(충의공파)	20,000
양수(충의공파)	20,000
양현(해남)	20,000
영수(광주 광산군)	20,000
원렬(전북 완주군)	20,000
장규(충의공파)	20,000
장선(전남 보성군)	20,000
장수(경기 고양시)	20,000
정동(경북 구미시)	20,000
정용(전남 보성군)	20,000
종찬(충의공파)	20,000
종철(전남 강진군)	20,000
준기(충남 천안시)	20,000
진희(경기 수원시)	2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충수(충의공파)	20,000
충호(강원 원주시)	20,000
태문(경기 수원시)	20,000
태식(서울 동작구)	20,000
택규(충의공파)	20,000
홍섭(경기 양주시)	20,000
<b>합 계</b>	<b>2,720,000</b>

# 청한산악회 3월, 4월 정기산행

##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화도와 경관이 수려한 공작산으로

청한산악회(회장 삼량)는 지난 3월 31일 회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자 해안선과 낙조가 아름다운 강화도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전등사를 거쳐 교동도 참판공문중(14세 繼善 하 16세 安國의 후손)을 방문하여 영선회장의 안내로 안국선조의 배위(교동인씨)묘소를 참배한 후 문중에서 조성 관리하는 공원묘원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은 후 해일재(即日齋)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연산군유배지 등 유적 탐방과 화개산 산행 후 대룡시장을 관광하고 귀경하였다. 창섭, 재국, 영선회장 등 수고해주신 강화도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한다. 지난 4월에는 산꼭대기에서부터 뻗어나간 능선이 마치 공작의 펼쳐진 날개처럼 아름답다는 공작산의 수타계곡을 다녀왔다.

수타사와 노천리에 이르는 약 8km의 수

타계곡은 멋진 암반, 깨끗한 물줄기와 커다란 소, 울창한 수림과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으로 맞아줄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특히 정상일대의 철쭉군락은 지리산의 세석평전을 방불케 하고 가을단풍과 노송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어우러진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 덮인 겨울 산 역시 등산객을 매료시키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한다.

〈산행안내 및 문의 - 중앙종친회〉

#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여주 벚꽃축제 참관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4월 14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주 흥천지역으로 선조묘소 탐방을 겸한 벚꽃축제장으로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여주 갑전일가의 안내로 문정공 하 영흥공의 후손인 참판공(16世, 휘 胤昌), 정사보를 편찬하신 석탄공(19世, 휘 孝仲)선조의 묘소를 참배한 후 만개한 벚꽃길 도로를 따라 흥천남한강벚꽃축제를 찾았다.

벚꽃길은 7.5km 구간으로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뤘고, 축제장을 찾은 가족 및 나들이객들을 위한 사진 콘테스트, 포토존, 공연, 노래자랑 등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마련되어 회원들은 꽃놀이로 추억을 간직한 곳으로 기억에 남

을 듯하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안산자락길을 찾아 산행과 화합을 겸한 시간을 가졌다. 안산자락길은 안산둘레를 걷는 길로 잘 닦여진 길과 다양한 풍광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장학기금 납부내역(3~4월)				단위: 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2230	회양공민위장학회(규백)	100,000,000	100,000,000	
2231	춘희(문숙공종중회장)	1,000,000	1,000,000	
2232	인교(경기 동두천시)	500,000	500,000	
1151	규백(경기 김포시)	300,000	2,230,000	
1971	수교(대전종친회)	200,000	600,000	
1978	동욱(대전종친회)	150,000	540,000	
118	태진(경북 구미시)	100,000	2,200,000	
884	정수(광주 동구)	100,000	1,500,000	
2229	창영(경남 남해군)	100,000	100,000	
1172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300,000	
799	조정(서울 마포구)	30,000	26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640,000	
<b>합 계</b>		<b>102,520,000</b>		

무강왕릉수해대책위원회 헌성금(3~4월)		단위: 원
이름	금액	
한삼량(청한산악회 회장)	1,000,000	
판관공파종중(회장 연동)	300,000	
강락 자문위원(대구 서구)	100,000	
강, 종수(참의공파안산종중)	100,000	
<b>합 계</b>	<b>1,500,000</b>	

단체정보비(3~4월)		단위: 원
이름	금액	
부산종친회	300,000	
강화군종친회	100,000	
횡성군종친회	100,000	
<b>합 계</b>	<b>500,000</b>	

#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 발족

## 소왕릉 현지에서 천막설치 비상대책회의

중앙종친회(회장 주태)는 지난 4월 1일 청주한씨를 위시해서 선우씨와 기씨문중을 포함 더욱 강력한 수호대처를 위한 무강왕릉수호범대책위원회 조직을 발족하고 위원장 및 대책위원을 선임하였다.



위원장에는 태락대구경북종친회장, 위원에는 갑수대전회장, 영교회장, 연동회장, 동수회장, 승남감사, 동석회장, 삼랑회장, 의구예학회장, 광운회장, 인식부회장, 봉수부회장, 일용이사, 윤수이사, 봉수총무 등 14명을 선임하였으며, 갑수명예회장, 익수고문, 기호고문, 길수회장, 선교회장 등 5분을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이어 범대책위원회는 4월 3일 익산 소왕릉 현지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익산시의 소왕릉 발굴조사 계획과 고유제 봉행 참여요청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 시 고유제에 참여토록 할 것임을 결의하였다.

범대책위원회는 1. 소왕릉 발굴 진행 과정에 청주한씨문중 참여 2. 소왕릉에서 유물이 출토되거나 특이한 점 발생 시 문중에서 추천한 사학자 참여 3. 무강왕릉 관련 문헌기록 외부 표지판 설치 4. 매년 쌍릉의 제향 봉행 협조 5. 대왕릉에서 발굴된 인골의 과학적 분석 재의뢰 (청주한씨가 원하는 연구소, 유럽 등)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인골의 분석 재의뢰 건을 제외하고 (익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관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회신으로 약속함에 집행부 임원회의의 재논의를 거쳐 4월 9일 소왕릉 발굴조사 고유제에 참여를 수락하였다.

# 민구고문(전 국방장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 취임



전 국방부장관인 민구고문(사진, 충북 청원, 장간공파)이 지난 4월 19일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을 민간차원에서 연구하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의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정부의 외교·통일·국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왔던 전직장관 등 고위관료와 이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민간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임관 후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민구 신임원장의 조부(祖父)는 구한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청암(淸巖) 한봉수(韓鳳洙.1884~1972)의 병장이다.

# 2019년도 종묘대제 제관 봉무

## 동경·도영·만구·우권·동훈일가



지난 5월 5일 문화재청과 종묘제례보존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된 종묘대제(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에 동경(부산시회장), 도영(충성공파)일가, 우권(예빈운공파)일가, 만구(문정공파)일가가 각각 정

전(태조실,성종실,인조실)에 아헌관과 종헌관으로, 동훈(천안시)일가, 기복(부산시)일가, 현수(참판공파)일가는 집사와 참판원으로 참여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종묘대제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로에 있는 종묘(宗廟)에서 봉행된다.

# 회양공파종중 장학기금 1억원 출연

회양공파종중회(회장 규백, 사진 중앙우측)는 지난 3월 29일 중앙종친회(회장 주태, 사진 중앙좌측)를 예방한 자리에서 장학기금 1억원을 출연, 회양공단위장학회를 결성하였다.



규백회장은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장학사업에 일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중원의 뜻을 모아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로효친사업에도 더 많은 관심으로 중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하였다. 추대회장은 회양공파종중에 감사의 인사로 화답하고 앞으

로도 중앙회를 비롯한 종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 고성군종친회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 고유의 성씨이자 오래된 성씨 중 하나인 청주한씨(淸州韓氏) 고성군종친회(회장 삼렬)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고성읍 소재 황리갈비식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만준 경남종친회장, 동경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한 한씨일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 및 예산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종친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수만부회장과 지훈이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삼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선조 없는 우리 없다”며 “갈수록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주한씨 일가는 승조돈목 정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하고 “청주한씨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일가가 종친회에 참여하고 또 젊은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고성군종친회 삼렬회장)

# 양혜공종중 시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양혜공종중(회장 치용)은 지난 4월 9일 치용회장을 비롯 9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마전동소재 양혜공(14세, 휘 백륜)묘소에서 초헌관에 치용회장, 아헌관에 기주(순천), 종헌관에 윤술(대구)일가가 분방되어 영수일가의 집례로 양혜공부군의 시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으며 이어 15세 선조에 대한 단제도 봉행되었다.



이날 시향제에 앞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치용회장이 유임되었으며 치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

욱 열심히 종사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 정관계 증진고문 간담회 개최 증사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덕수전국무총리께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원고)

지난 3월 29일 갑수명예회장의 주선으로 정관계 증진고문의 간담회 모임이 광화문소재 일품당에서 개최되었다. 추태회장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갑수명예회장과 참석해주신 고문, 원로분들께 감사사를 전하고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업무 추진, 장학기금 확충추진 및 운영사항, 선조님의 향사일정 등 주요 증사현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원로분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과 고문, 원로분들은 추태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어

려운 시기에 증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자는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갑수명예회장, 승수(전)총리, 덕수(전)총리, 승현(전)감사원장, 화갑(전)평민당대표, 봉수(전)상공장관, 민구(전)국방장관, 양수(전)민족통일중앙협의회회장, 상대(전)검찰총장, 상울(전)국세청장, 동주예비역증장, 기호상임고문, 추태중앙회장, 길수서원군문중회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 중앙회 수석부회장 및 전담부회장 선임



좌로부터 태락부회장, 추태회장, 동수부회장, 삼랑부회장

중앙총친회 추태회장은 지난 4월 수석부회장에 연동관관광공중회장, 종무부회장에 동수문간공과회장, 제전부회장에 태락대구·경북총친회장, 청장년부회장에 삼랑청한산악회장을 각각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추태회장은 차질 없는 증사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무분야를 선정, 적임자분들로 부회장을 선임했음을 밝히고 중앙총친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함께 뜻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와 논의 후 조직과 임원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총친회를 사칭,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중앙총친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총친회를 사칭(詐稱)하는 사기집단이 일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한씨증사보감'이라는 책자의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면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중앙총친회에서는 어떤 책자의 구매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으니 절대로 속지마시고, 중앙총친회를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즉각 중앙총친회로 연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총친회 전화번호는 (02)720-6370~1

청주한씨 중앙총친회

## 仁谷祠 (Ingoksa) - 韓如海 사당

[정의]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27에 있는 조선 후기 사당.



인곡사 전경

[개설] 조선시대에는 가문의식이 형성되면서 존조경종(尊祖敬宗)이 강화되어 사당을 건립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인곡사 역시 이러한 사당에 해당하는데,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항복한 것을 비분강개하여 산중에 은거하였던 회헌 한여해(韓如海)를 추모하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 청주한씨 종중에서 건립하였다.

입구에는 외삼문이 있다.

[현황] 현재 청주한씨 종중에서 매년 한여해에 대한 기제사를 올리고 묘소에 성묘하고 있다. 사당내 상량문에 '송정기원후육무술칠월이십삼일'이라 하여 1958년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의의와 평가] 인조 및 효종 때 청나라에 대한 항복에 울분을 토하며 은거한 한여해를 모신 인곡사는 충절의 고향인 충주시의 역사·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유적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치] 충주시에서 제천 방향으로 국도 19호선을 타고 목행대교를 넘어 금가삼거리에서 금가면 방향으로 좌회전한 뒤 하담리를 지나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축동마을이 나온다. 축동마을을 지나면 곧바로 잠병리가 나오는데 이곳에 인곡사가 있다. 이곳에서 남서쪽 300m 지점에는 한여해 묘소가 있다.

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발췌 요약, 편집자

[형태] 인곡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 인곡사 춘계제향 성황리에 봉행



지난 4월21일(음력 3월17일)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초당마을 인곡사(원장 충주향교장의 근암 김병천)에서 충주향교장의(掌議)를 비롯한 충주시 유림과 청주한문의 상인충주시총친회장 및 청년회 두회회장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한씨 문정공(휘 繼禱)의 넷째아들 영흥공(휘 士介)의 후손인 회헌(晦軒) 한여해(韓如海, 21世)선조의 춘계제향이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데 2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으며, 병자호란 시 청과 화의가 성립되자 개연 절의를 지키고자 대과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문곡 김수항, 외제 이단하, 구당 박장원 등이 각종 벼슬에 천거 또는 권유를 하였으나 뿌리치고 일생동안 벼슬과 파당을 떨쳐버리고 율곡의 학통을 계승하시어 경사와 성리학에 정진하시며 후학양성에 전념하시다가 숙종 19년에 87세로 생을 마친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초현관에는 인곡사원장이신 김병천 충주향교장의, 아현관에는 충주향교 임병도장의, 종현관에는 전철공(典籤公)종중의 한동신회장께서 각각 분방되었으며 이찬재장의(掌議)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청주한문의 후손들은 유림과 더불어 여해선조님의 숭고한 정신과 학문 연구의 열정, 후학양성의 진정성을 본받고 계승 발전시켜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인곡사 김병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헌 한여해선생은 인조 11년 사마시에 응시하여 24명을 선발하는 가운

(청주한씨 전철공파 총무 금섭)